

The Economy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9. 2

8월 미국 ISM 제조업: AI 수요 견조, 공급 제약 부각

해외채권/크레딧 | 박지빈 | jibin@ls-sec.co.kr

확장세 이어졌지만 신규주문 중심으로 수요 모멘텀 둔화

8월 미국 ISM 제조업 PMI는 54.6으로 예상치(55.2)와 전월치(55.6)를 모두 하회했으나, 8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상회했다. 신규 주문은 56.7→53.7로 하락했고 수주잔고도 55.0→51.8로 낮아지며 전월의 강한 수요 모멘텀은 다소 둔화됐다. 반면 생산은 58.5→58.3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신규수출주문은 53.0→53.2로 소폭 상승했다. 고객재고 역시 40.7→42.8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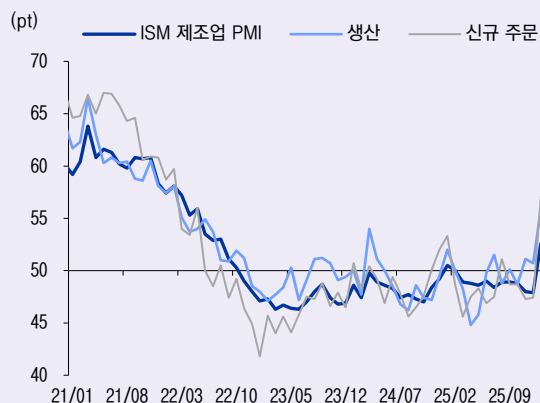
공급망 차질 지속되며 비용 압력은 높은 수준 유지

고용지수는 52.8→51.2로 하락했으나 2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했다. 제조업 전반의 수요 모멘텀이 다소 약화된 것과 달리 공급 지배송지수는 58.9→59.3으로 상승해 납기 지연이 심화됐으며, 가격지수는 71.1로 전월과 동일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ISM은 철강·알루미늄 가격과 관세, 중동 분쟁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을 비용 압력 요인으로 지목했으며, 전자부품은 18개월, 메모리는 8개월 연속 공급 부족 품목에 포함됐다. 상대적으로 약화된 수요 모멘텀에도 공급측 비용 압력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AI 수요 견조, 공급망 부담으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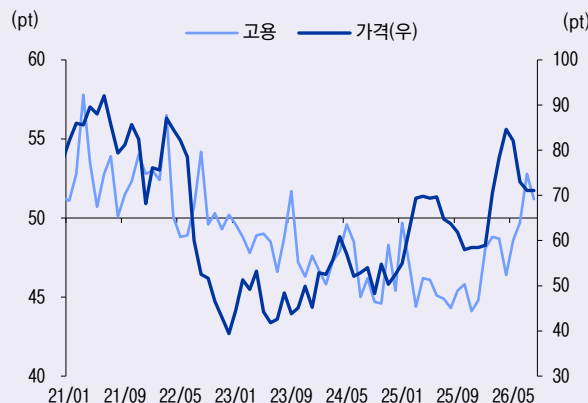
AI 관련 수요는 여전히 제조업을 지지하고 있으나, 8월에는 공급 측 부담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7월에는 반도체·AI·첨단 패키징·고성능 컴퓨팅 시장의 성장이 우호적인 수요 환경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데이터센터용 제품의 조달·생산 확대가 부각됐다. 반면 8월에는 포토닉스·고속 커넥터·반도체 주문 증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AI가 대량 소비하는 부품의 조달 여건 악화와 가격 상승, 리드타임 증가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확대됐다. 실제 컴퓨터·전자제품 업종의 신규주문 및 수주잔고는 확대되었으나, 생산은 감소했다. 따라서 AI 투자 확대의 영향이 제조업 수요를 지지하는 동시에 관련 부품의 공급 제약과 납기·비용 부담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ISM 제조업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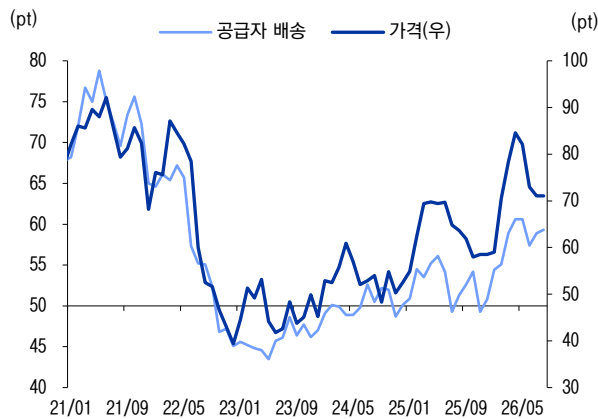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고용 및 가격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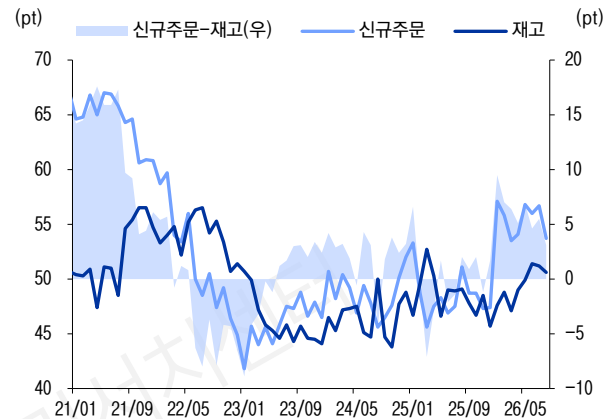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공급자 배송과 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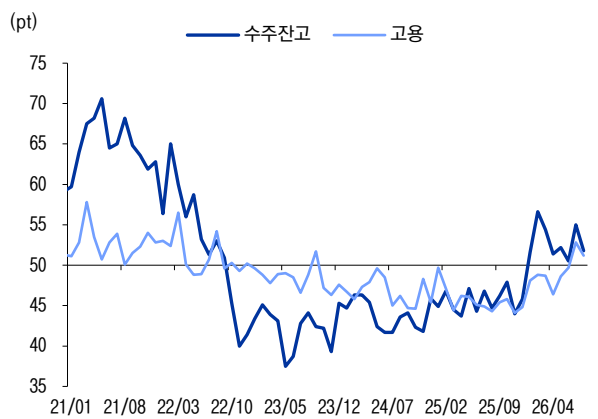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신규주문-재고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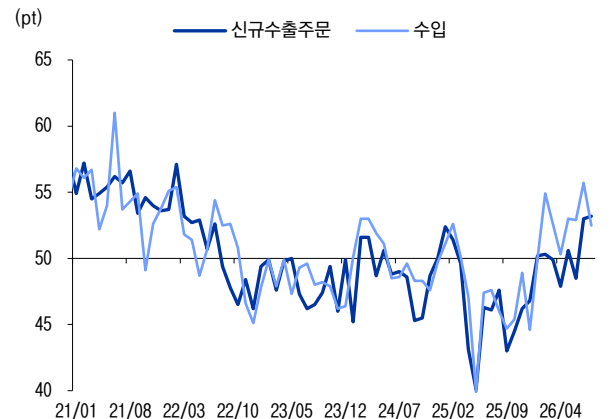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수요 개선의 고용 확산 여부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해외 수요와 글로벌 교역은?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박지빈).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